

“영광굴비 ‘천년명성’ 되찾자”

■ 르포 - '굴비 명예회복' 나선 영광 법성포

“영광굴비의 ‘천년 명성’을 되찾아라.”

추석을 3주 가량 앞둔 지난 13일 오전 10시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일원. 소금기 뺀 굴비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왕복 4차선 대로변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굴비 업체들은 ‘대박’을 앞두고 포장 작업이 한창이었다.

마을 아낙들은 각 상점의 저문창고 안에서 5~10명씩 모여앉아 조기를 소금에 절여 끈에 엮느라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인근의 한 조기

원 아래로 곧두박질 쳤다. 이미 배송된 굴비는 반송되기 일수였으며, 밀려들던 주문도 언론보도 직후 뚝 끊겨버렸다.

영광굴비가 수모를 겪는 동안 제주도 참굴비나 여수참굴비, 추자도 굴비 등은 반사 이익을 얻었다. 일부 업체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인해 독보적인 존재였던 ‘영광굴비’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린 것이다.

실제 중국산 ‘짜퉁 굴비’를 유통하는 업체가 단 한 곳이라도 적발되면 영광굴비 업체 전체의 1년 농사가



추석 대목을 맞은 지난 13일 영광군 법성면 한 굴비 생산업체에서 직원들이 굴비를 10마리씩 끈으로 엮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품사업단·업체 “진품만 사용” 캠페인 ‘짜퉁 굴비’ 오명 벗고 품질 업그레이드

가공업체에서는 백화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포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영광굴비업체 400여곳 이상이 가입된 영광법성포 굴비 특품사업단에 따르면 법성포 지역을 중심으로 1년간 영광군 전체에서 제조·판매되는 굴비의 양은 1만9천여(시가 3천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 중 설과 추석을 앞둔 2~3주 동안의 판매량이 전체의 80~90% 차지한다.

영광굴비는 올해 설 대목 때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흥역을 치렀다. 이른바 중국산 ‘짜퉁 굴비’가 영광굴비로 둔갑해 유통된다는 언론보도가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설 대목이면 1천200억~1천500억원 상당의 굴비가 팔렸던 과거와 달리 올해 설에는 판매량이 1천억

달러가 곤 한다. 추석을 앞두고 영광군과 굴비업체가 사활을 걸고 원산지 표시 이행 캠페인 등 자정 노력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영광법성포 굴비 특품사업단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굴비업체 등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2일 원산지 표시 이행 강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짜퉁 굴비’의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 강행원 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회원업체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영광군 전체가 나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굴비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올 추석 대목을 계기로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업체들의 각오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설에 겪은 ‘짜퉁 굴비 유통소동’이 영광굴비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반응도 나온다. ‘짜퉁 소동’ 이후 굴비의 원산지표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를 열가공하고 포장하는 단계를 보다 위생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법성포 참굴비 최한수(41) 공장장은 “원산지 표시 강화는 물론, 열가공과정이나 박스 포장, 완제품 보관 최고의 상품 생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부터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김형호·조익성기자 khh@

“재소자에 영상편지 띄우세요”

“재소자 영상편지로 가족들의 안부 전하세요.”

광주지방교정청(청장 송영삼)은 14일 재소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쌍방향 가족 영상편지’ 프로그램을 광주교도소

등 7개 교도소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영상편지는 재소자나 가족이 비디오에 영상 메시지를 담아 서로 교차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용자나 원거리 거

가족면회 프로그램 개발 광주교도소 등 7곳 시행

주자, 노약자, 장애인 등 접근이 곤란한 수용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첫번째 영상편지의 주인공은 광주교도소에 2년째 수용중인 김모(여·40)씨로 선정됐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김씨는 지난 10일 광주에 사는 노모와 어린 두 자녀에게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영상편지를 보냈다.

이에 노모는 회신 영상을 보내 “새로운 사람이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중년의 딸에게 용기를 심어줬다. /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父女 불륜 숨기려 범행”

검찰, 15년 전부터 부적절 관계... 유족 “짜맞추기 수사”

지난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부적절한 관계가 들끓는 것을 두려워한 부녀(父女)간의 공모에 의한 범죄라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14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 최모(59)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59)씨와 A씨의 딸(26)을 구속 기소하고 사건 전모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범행 동기는 검찰은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씨와 지숙적인 갈등을 빚은 것이 범행의 결정적 동기로 보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부녀간의 관계를 알고 있던 최씨는 이들에게 수시로 질책했다. 특히 딸이 최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와 자주 어울려 다닌 사실을 알면서 모녀간 갈등은 극에 치달게 됐다.

물증 논란=이번 사건의 진상은

A씨의 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엉뚱한 사람을 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람이 결백을 호소하면서 검찰이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 전모가 조금씩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살인사건의 유력한 증거로 청산가리 막걸리와 피의자들의 자백을 제시했다.

막걸리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와 구입처 등을 파악했고 청산가리도 수전 전 지인에게 구했으며 자신들이 막걸리에 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산가리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는 피의자들의 자백과 정황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강압수사 논란=유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동생은 “검찰이 지능이 떨어지는 조카를 데려다 겁을 쥐 자백을 받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 딸의 정신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저 지능 논란’을 일축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ekjkim@

나원침 (7903) 김중두



백도 무허가 낚시 16명 적발

여수해양경찰은 14일 문화재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허가 없이 낚시를 한 김모(40)씨 등 낚시꾼 15명과 이들을 태워다 준 어선 선장 A(33)씨 등 모두 1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김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당국에 사전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에 무단 상륙, 이튿날 아침까지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주일 교회 사무실 돌며 상습 절도

○광주북부경찰은 14일 주일 예배시간을 이용해 교회 사무실을 골라 금품을 털어간 김모(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교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기타 1대를 훔쳐가는 등 최근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냈다.

○최씨는 주일 예배시간이면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유혹비를 마련하려고 했었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5·18 유공자’ 후유증 숨져

총상으로 정신질환 등 시달려 약물 과다복용

5·18 민중항쟁 당시 입은 부상으로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려온 한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 오전 8시25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60)씨가 자신의 집 작업방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누너(7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이 쏜 총에 어깨를 맞았으며 모진 구타로 머리까지 다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입은 부상과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얻게 된 김씨는 수십 년 간 알코올 중독과 당뇨병, 고혈압 등에 시달려왔다고 주변인들은 전했다.

김씨는 또 지난 1991년 5·18 민주유공자(1급)로 등록됐으며 최근까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노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경찰은 김씨가 자병에 시달리면서 “약물을 다량 복용해 왔다”

는 유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돌연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폭주족 44명 검거

차량 무단 개조 등 각종 불법 운행을 일삼아온 ‘폭주족’ 광주 10일 자 6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4일 폭주족 44명을 적발, 이 중 박모(29)씨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 일원에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YHB (Young Home Bank)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promoting services like '연기/임사로 민원고충 YHB가 해결' (Solving administrative troubles with YHB through mediation/rental) and 'YHB' logo.

Advertisement for '결로침방이방을' (Prevention of mold and water damage)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ext about '건강과 품격의 일인방' (One person for health and clas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601 (주)이따들지'.